

메이지 유신의 발상지, 사쓰마를 가다

박 훈 (서울대)

근대일본의 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박 훈

메이지 유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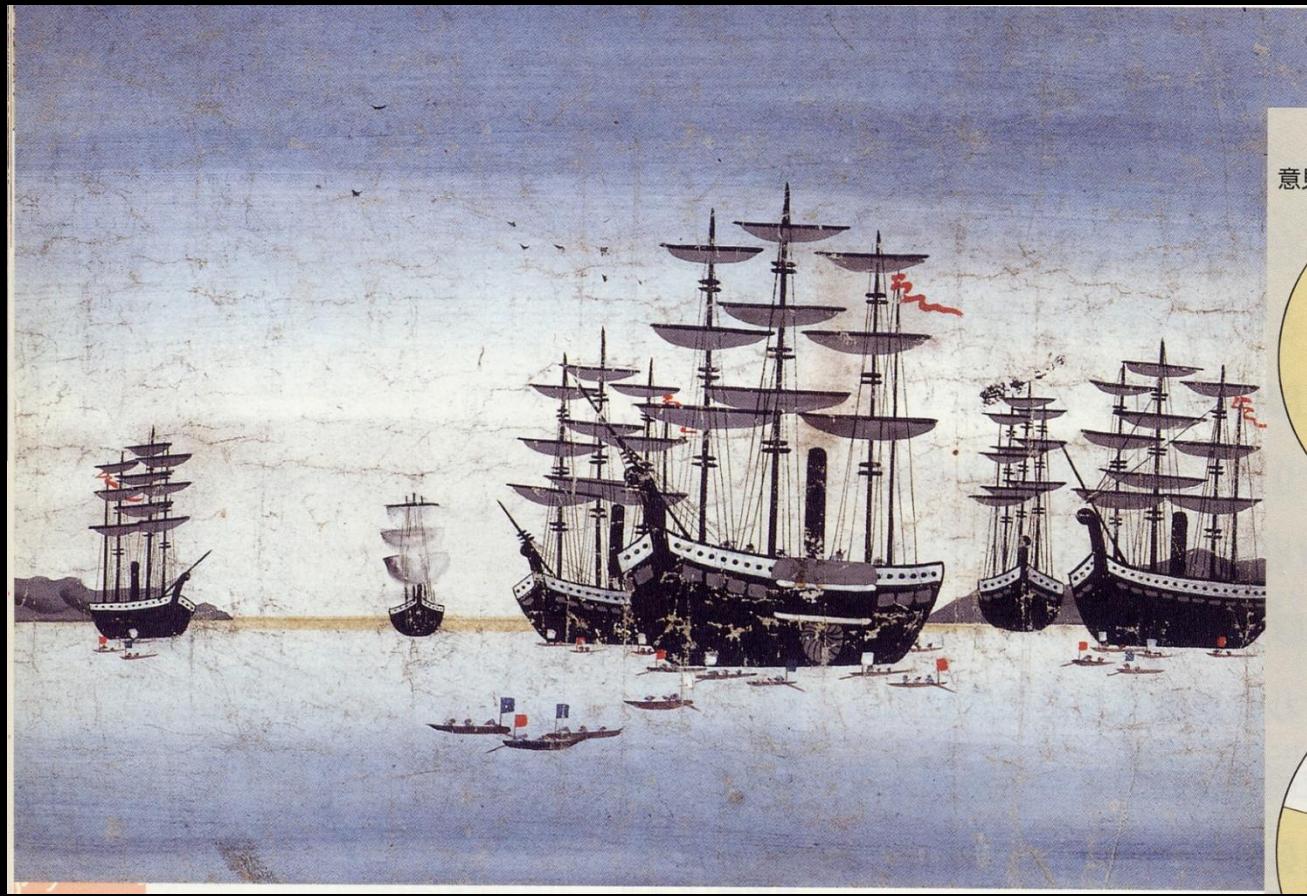
-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적 대변혁
- 19세기 말까지 비서구 세계 유일의 성공적 인 근대화/서양화
- 20세기 일본사 뿐 아니라, 동아시아사, 나아 가 세계사에 큰 영향
- '근대화의 모범사례'를 넘어서 한 사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응/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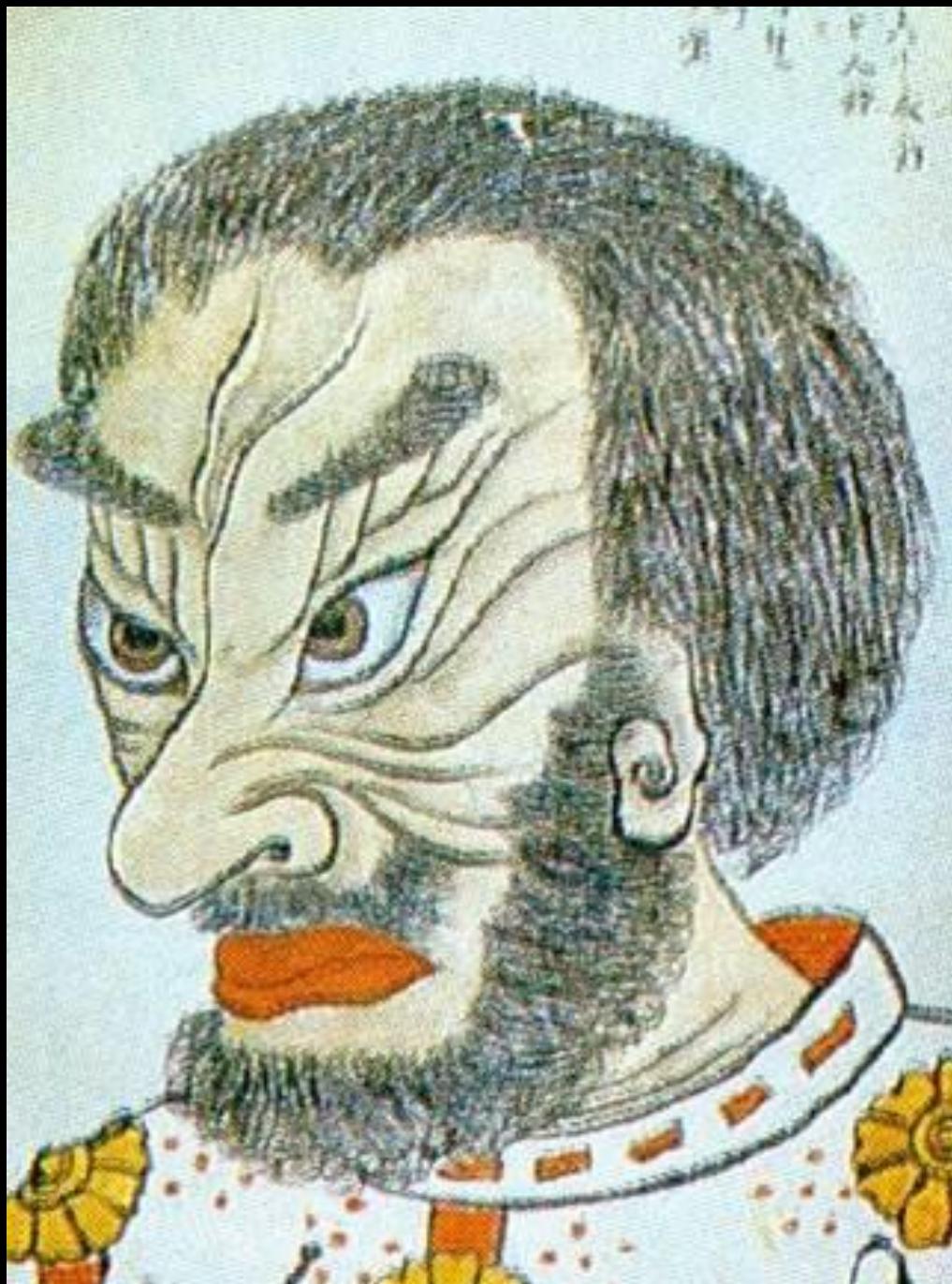
서양의 압력과 일본의 개국

- 페리 함대, 에도만에 진출(1853)-막부와 에도 시민의 쇼크



흑선 黑船의 충격









페리의 항해노선과 목적

- 페리의 항로:

대서양-케이프타운-인도양
-상하이-오키나와(나하)-에도

- 1848년경 미국서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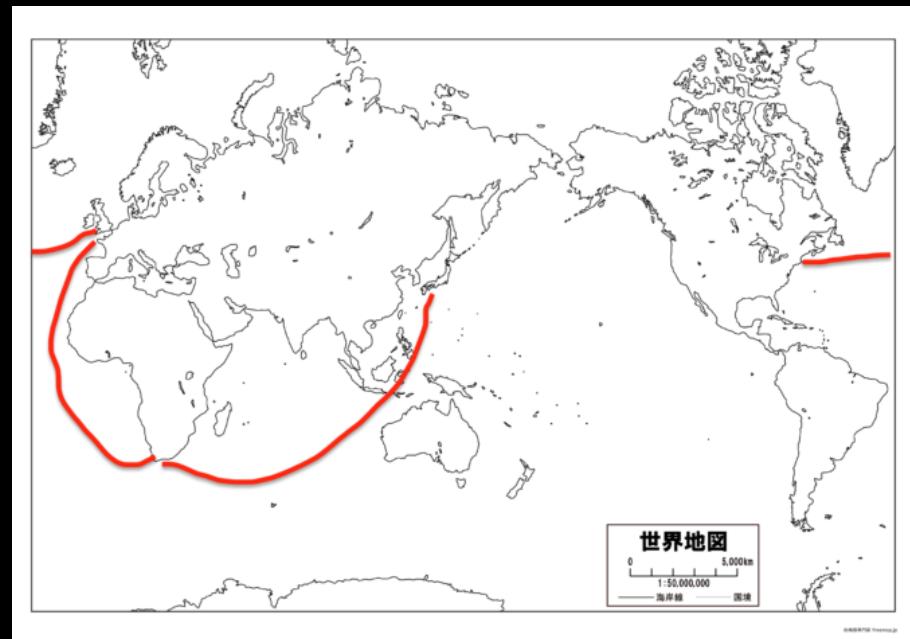
골드 러시

- 미국서부와

중국연결항로, 기항지 확보

- 북태평양 포경업

배후 기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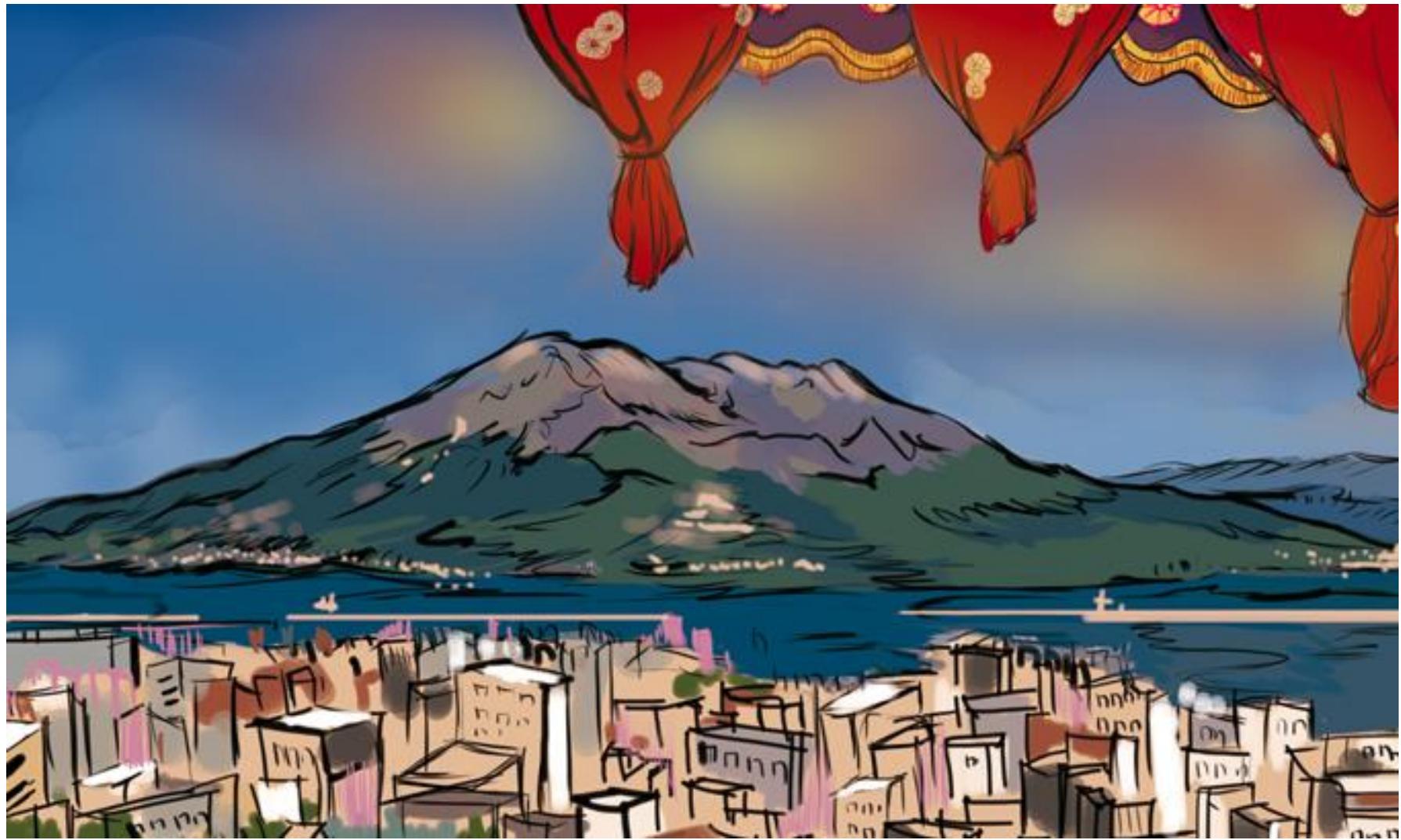
일본의 개국

- 1854년 미일화친조약
(가나가와 조약) 체결
- 1858년 미일통상조약 체결
(安政의 5조약)
- 조선, 강화도 조약 1876년
- 조선, 1882년 이후
서양각국과 조약
- '역사적 시간'의 격차



사쓰마번과 조슈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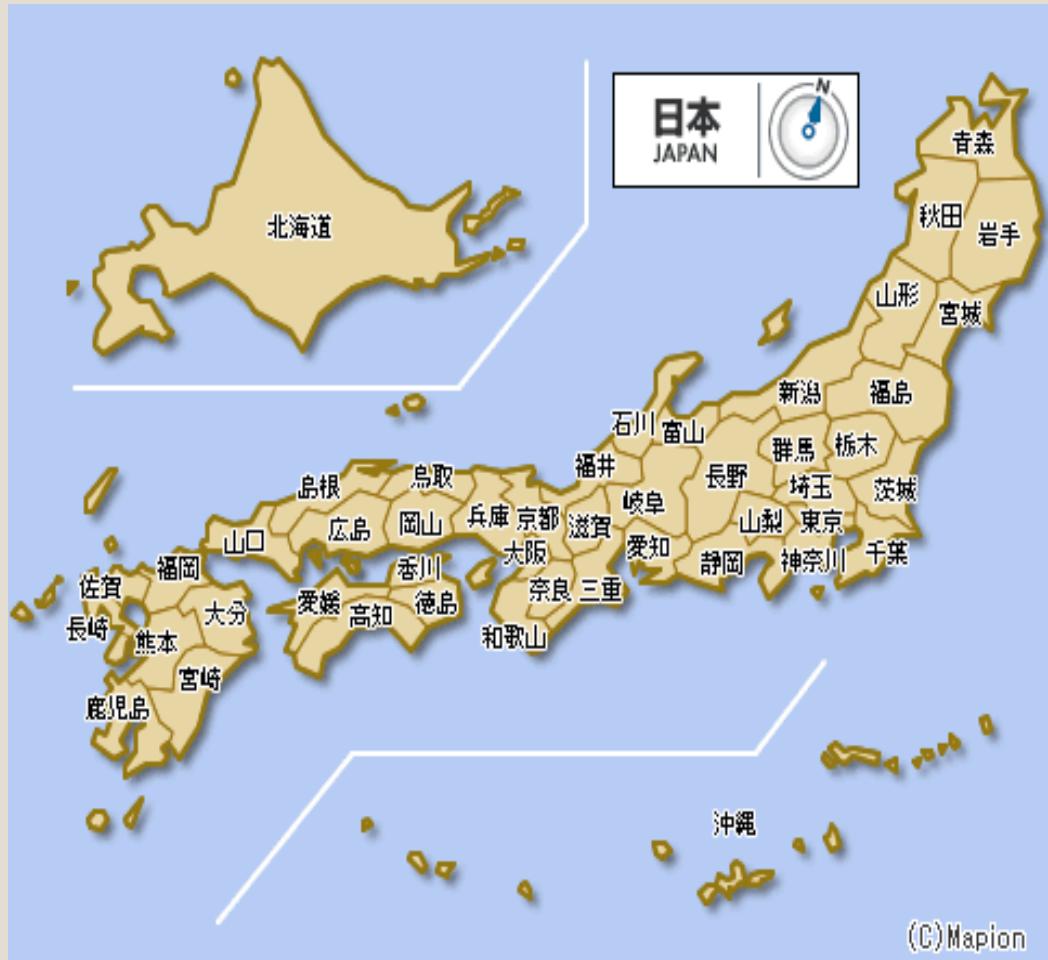




1. 가고시마(사쓰마) 개관 ①

가고시마(鹿児島) 현(県)

- 면적 9,187 km²
 - ※ 경기도 10,175 km²
 - ※ 일본전체 377,972 km²
 - ※ 남한전체 100,295 km²
- 인구 1,627,435명
 - ※ 가고시마시 597,375명



1. 가고시마 개관 ②

사쓰마(薩摩)국(国)
+ 오즈미(大隅)국(国)

↓ 막번체제
(幕藩体制, 1603)

사쓰마(薩摩)번(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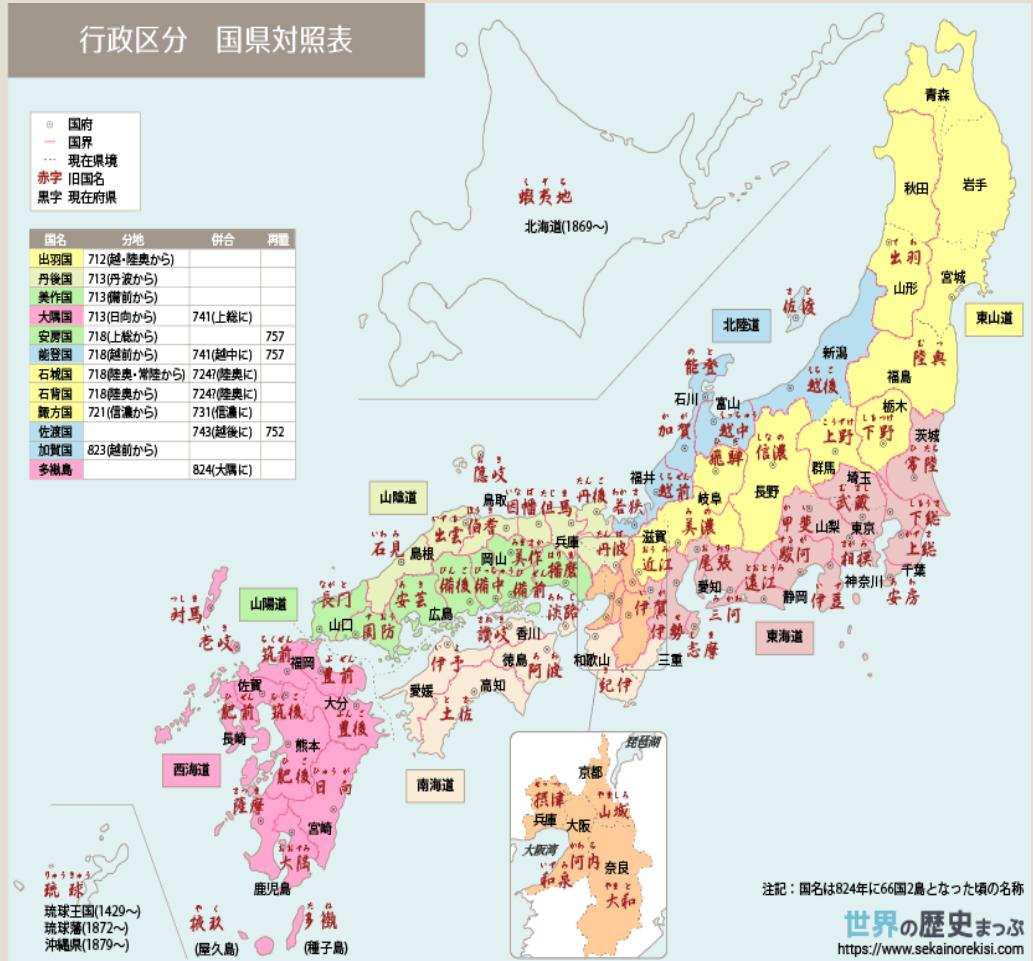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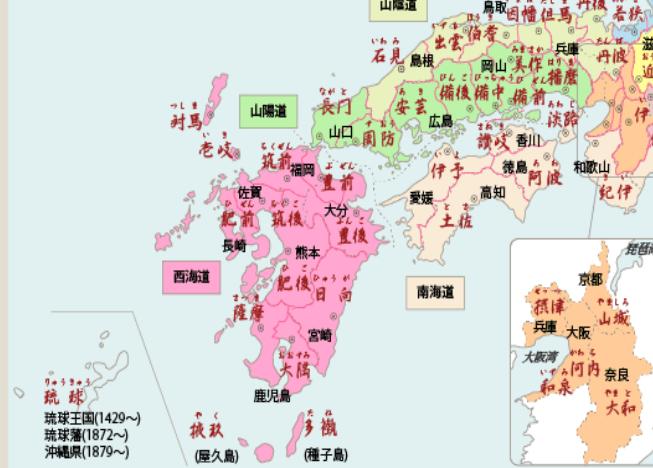
↓ 폐번치현
(廢藩置県, 1871)

가고시마(鹿児島)현(県)

行政区分 国県対照表

○ 国府
— 国界
… 現在県境
赤字 旧国名
黒字 現在府県

国名	分地	併合	再置
出羽国	712(越・陸奥から)		
丹後国	713(丹波から)		
美作国	713(備前から)		
大隅国	713(日向から)	741(上総に)	
安房国	718(上総から)		757
能登国	718(越前から)	741(越中に)	757
石城国	718(陸奥・常陸から)	7247(陸奥に)	
石背国	718(陸奥から)	7247(陸奥に)	
讃方国	721(信濃から)	731(信濃に)	
佐渡国		743(越後に)	752
加賀国	823(越前から)		
多々良島		824(大隅に)	



注記：国名は824年に66国2島となった頃の名称

世界の歴史まっふ
<https://www.sekainorekishi.com>

가고시마 개관 ③



米 150kg = 1 石
= 1 両 = 10万円

百万石 =
1000億円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사쓰마

-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395) 4월 25일

일본 살마주(薩摩州)…이
집원 태수(伊集院太
守) 등원뇌구(藤原賴久)
가 신(臣)이라 일컫고 글
을 올려서 예물을 바치고,
이곳 저곳 전해서 온 피로
(被擄) 인구를 돌려보내
왔다.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1415) 12월 13일

일본(日本) 살마주(薩摩州) 등원뇌구(藤原賴久)가 표(表)를 받들어 예물을 바치고 굽주
림을 진휼하도록 청하고, 등원뇌시(藤原賴時)가 또한 예물을 바치고 잡혀 갔던 사람을
돌려보내고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사쓰마

-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1423) 1월 12일

일본국의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 세 주(州)의 태수(太守) 조신(朝臣) 원구풍(源久豐)이 사람을 시켜 와서 토산물, 유황(硫黃) 3천 근, 큰 칼 [大刀] 10개, 금란(金欄) 1단, 서각(犀角) 2본, 백단향(白檀香) 10근, 침향(沈香) 10근, 백예(白銳) 10근, 감초(甘草) 10근, 소목(蘇木) 1천 근, 부채[扇子] 20자루를 바치니, 그들을 접대하도록 명하였다. 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가 구풍(久豐)의 서신(書信)에 답하기를, "영형(令兄)의 뜻을 잘 계승하여 통호(通好)하니 매우 기쁘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드리었다.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인 면포(縣布) 5백 40필을 돌아가는 사람에게 부쳐 보낸다." 라고 하였는데, 구풍(久豐)은 원구(元久)의 아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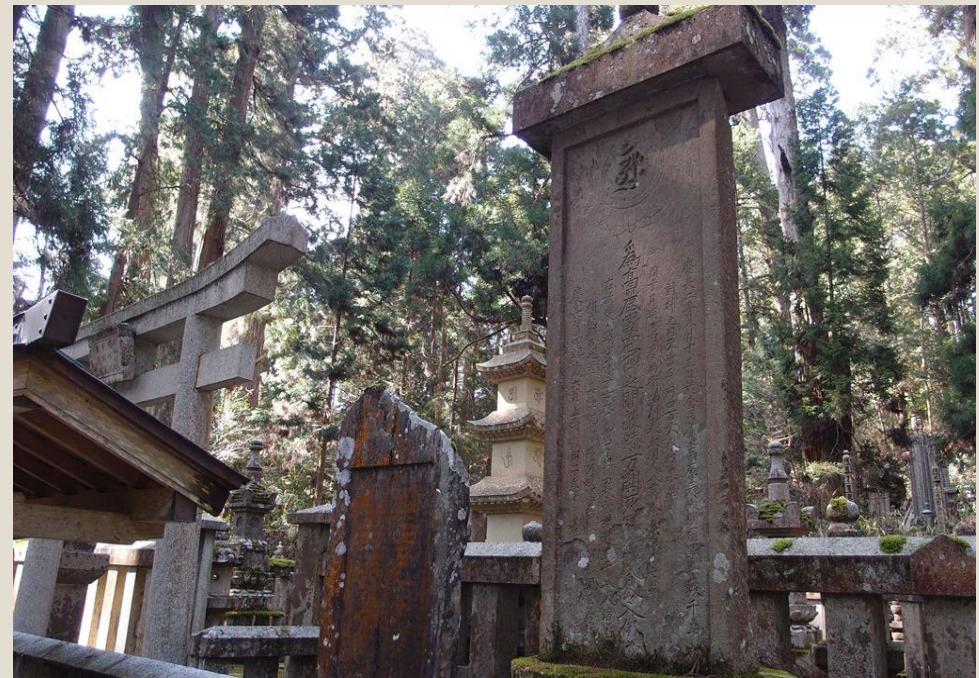
임진왜란과 사쓰마 ①

- 임진왜란(1592-93), 정유 재란(1597-98)
-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전체 약 20만명 중 사쓰마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부대는 약 1만명
- 이순신이 사망한 노량해전(1598)의 일본 측 주축은 사쓰마 부대

고려진 적·미방 공양비

(高麗陣敵味方供養碑)

(和歌山県高野山 , 1599)



임진왜란과 사쓰마 ②

- 중국 복건(福建)성과 일본 사쓰마번 그리고 류큐(琉球)는 16세기 중반 이래 해외무역망으로 연결
 - 1591년, 사쓰마의 허의후(許儀後) 복건성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침략 정보 전달. 전쟁으로 명과의 교역이 두절되는 것을 막고자.
- ※ 번주 시마즈 요시히사(島津義久)는 반 도요토미, 동생 요시히로(島津義弘)는 친 도요토미



임진왜란과 사쓰마 ③

- 1593년, 복건성 상인 허예(許豫)를 파견. 번주 요시히사 측근과 접촉. 해외무역의 지속을 꾀한다는 의사를 전달.
- 이후 복건 순무(巡撫) 허부원(許孚遠), 반 히데요시 세력인 사쓰마와 연계하여 일본을 공략할 것을 주장.
-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에서 요시히로는 실질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이후 도쿠가와 막부와 화해.



임진왜란과 사쓰마 ④

◦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1598) 12월 29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살마주(薩摩州)의 적장 도진의홍(島津義弘)은 본시 용맹스럽고 사나운데다 싸움을 잘하였으므로 서해도(西海道)에서 영웅으로 일컬어졌었습니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장수를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패하게 되자, 수길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크게 공격하니 의홍이 드디어 수길에게 신복하였습니다…**대개 살마주의 왜노는 오랫동안 일본에 신복하지 않았습니다.** 수길이 우두머리가 된 뒤에 위력으로 제압하였으나 그들이 배반할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좋은 말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심수관과 사쓰마야키 ①

- 1598년 시마즈 요시히로 전라남도 남원에서 도자기 장인 등을 포로로 잡아 귀환.
- 나에시로가와(苗代川, 현 미야마=美山)에 정착. 사쓰마번의 보호 · 감시 아래 한국 이름, 한국말, 한국 생활풍습을 유지하며 집단 생활.
- 초대 심당길(沈當吉)을 시작으로 대대로 조선식 도자기인 사쓰마야키(薩摩燒)를 제작.



심당길이 제작한 ‘히바카리(불만)’
단군을 모신 다마야마(玉山) 신사



심수관과 사쓰마야키 ②

- 제12대 심수관(沈壽官). 사쓰마 번영(藩營) 도자기공장 책임자로서 빈 박람회(1873년), 시카고 박람회(1893년), 파리 박람회(1900년) 등에 출품.
- 이후 ‘심수관’을 습명(襲名)하여 15대에 이름.
- 1989년,
제14대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에
취임.



주 가고시마 대한민국 명예총영사



메이지유신과 사쓰마 ①

메이지(明治) 유신(1868년) 전야:

사쓰마-영국 전쟁(1863년 5월)

- 1862년 9월 사쓰마 무사가 영국인을 살상한 나마무기(生麥)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
- 사쓰마 측은 영국 함대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으나 영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데 성공.
- 이후 사쓰마와 영국은 서로에게 접근.



사쓰마-영국전쟁



영국으로 유학생 파견



The Satsuma Students



5. 메이지유신과 사쓰마 ②

메이지(明治) 유신(1868년) 전야의 사쓰마: 파리만국박람회(1866년) 독자 참가

- ‘薩摩藩 및 琉球王国’ 이름으로 참가 → 막부 측의 항의(‘琉球’를 삭제하고 시마즈 깃발을 내릴 것 등).
- 결국 막부 측은 ‘대군(大君) 정부’, 사쓰마 측은 ‘사쓰마 태수(薩摩太守) 정부’로 하고 양 측 모두 히노마루(日の丸)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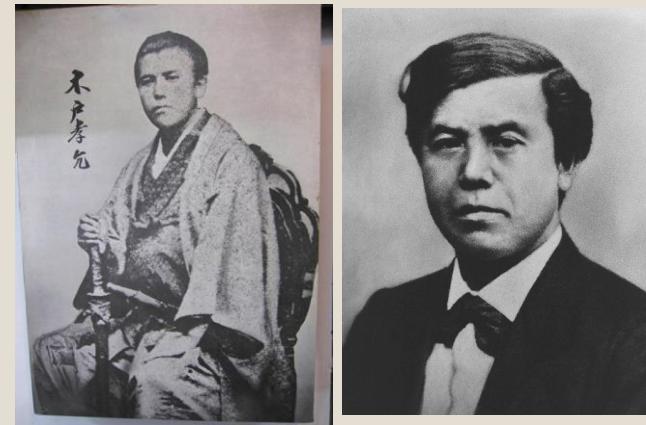


5. 메이지유신과 사쓰마 ③

- 메이지유신(1868)

삿초(薩長)동맹 vs 막부 → 신정부

※ 사쓰마+조슈(長州, 현 야마구치=山口)



- 유신삼걸(維新三傑)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조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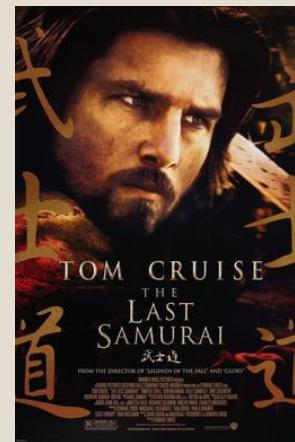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사쓰마)

오큐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사쓰마)



5. 메이지유신과 사쓰마 ④

- 1873년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론(征韓論)을 주장. 반대하는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정치적으로 패배하여 낙향.
- ※ 1876년, 오쿠보 강화도조약
- 1877년 세이난(西南)전쟁. 사이고 vs 오쿠보. 사이고 패전→자결. 영화 Last Samurai(2003).



6.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 ①

- 육군 오키나와전 특공작전은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한 1945년 3월 이후 개시.
※ 해군 가미가제(神風) 특공 작전은 1944년 10월부터 개시.
- 육군 오키나와전 전체 특공 전사자 1,036명(그 중 조선인 11명) 가운데 439명이 지란 기지에서 출격.
- 지란(知覽) 특공평화회관
“특공대원이 남긴 덕(德)을 조용히 회고”
“생명의 고귀함, 존엄을 무시한 전술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6.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 ②

- 탁경현(卓庚鉉). 1920년 경남 사천 출생. 교토 리쓰메이칸(立命館)중학교, 교토약학전문학교 졸업.
- 1943년 특별조종견습사관 1기생으로 합격, 지란 기지에 배치.
- 1945년 5월 11일 출격, 전사. 전날 밤 식당 주인 앞에서 아리랑를 불렀다고 전해짐.
-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사진 전시.
- 2008년, ‘귀향기원비’ 건립 소동.



7. 일본제국 최후의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 ①

-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 1882년 나에시로가와에서 봄 무덕(朴茂德)으로서 출생. 후일 도고라는 성을 얻음.
- ※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 전하는 한국어 교재『漂民對話』.
- 1904년 도쿄제국대학 독문과 입학.
- 1912년 외교관 시험 합격. 1919-21년 독일 부임.
유태계 독일 여성과 결혼.
- 1941-42년, 1945년 외무대신.
- 종전 후 A급 전범으로 투옥 중 1950년 사망.
- ※ 도고 시게노리 지음(김인호 옮김), 『격동의 세계사를 말한다』, 학고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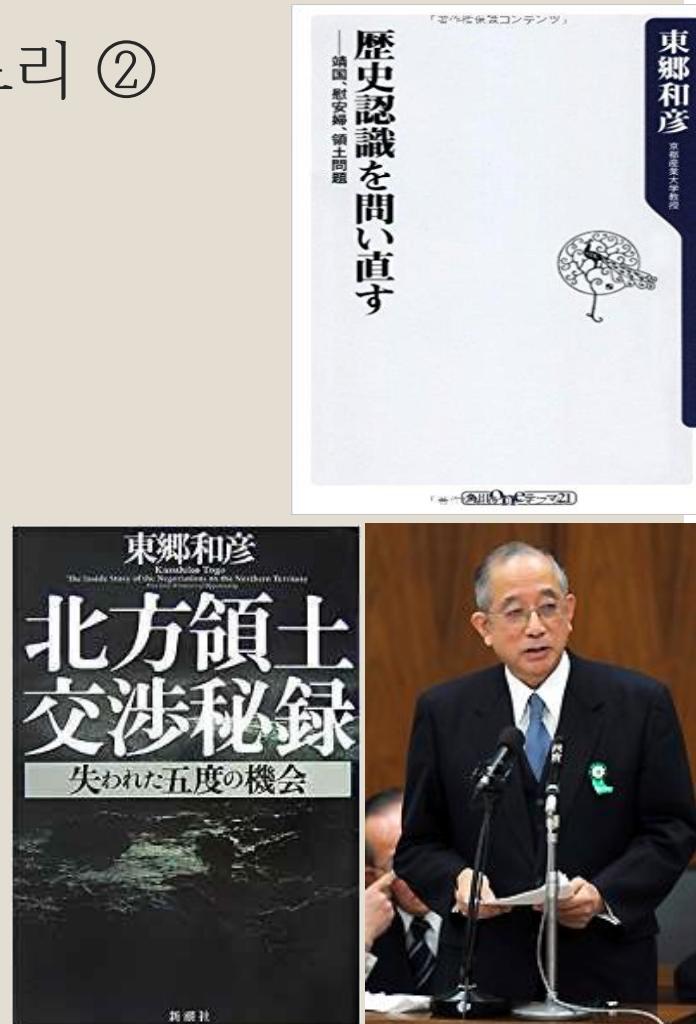


7. 일본제국 최후의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 ②

도코 가즈히코(東郷和彦).

도고 시게노리 외동딸의 아들.

- 1945년 출생. 도쿄대학 졸업. 외교관(러시아 전문).
- 1999년 일본 외무성 유럽아시아국장. 2001년 주네덜란드 대사.
- 2009년 교토산업대학 객원교수
-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에 관한 논저 다수.
일본 정부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



메이지유신의 리더십

일본의 박정희,
오쿠보 도시미치

유신3걸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



NHK 대하드라마 <사이고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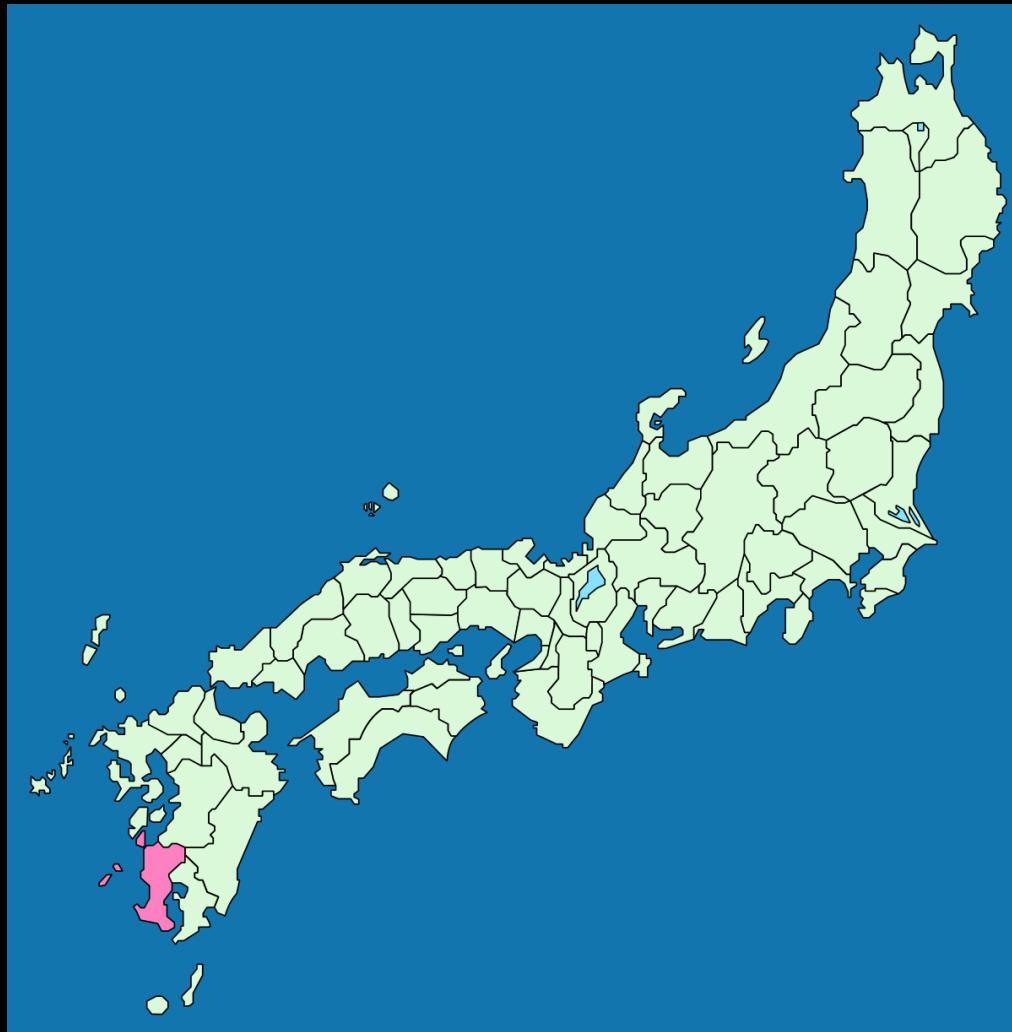
오쿠보 도시미치 동상



'일'을 한 사람들



사쓰마번의 위치



사쿠라섬과 가고시마성



周辺偉人誕生地



청년 오쿠보 도시미치(1830-1878)

- 1830년 사쓰마 하급 번사 가문에서 출생
- 1850년대 후반부터 하급사무라이 정치조직 정충조(精忠組)의 리더로 활동
- 1862년부터 중앙정계에서 활약
- 조슈와 동맹하여 반막부 운동 전개
- 무모한 양이(攘夷)운동에는 반대

유신쿠데타 주도

- 1868년 왕정복고
쿠데타
- 소어소회의
(小御所會議)를 주도



1868년경의 도시미치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로

- 1868년 4월 천황 첫 알현, "오로지 감격의 눈물" <일기>
- 교토의 전통적 관습을 버리고 천황친정을 위해 수도 이전(천도) 추진: 오사카 vs. 에도
 - 오사카 천도파
 - 서구열강과의 교류와 외교교섭에 유리
 - 해군정비와 국방에 유리
 - 에도 천도파
 - 훗카이도 개척 중요. 훗카이도 장악하면 에도가 지정학적 중심지
 - 에도성과 번저(藩邸) 건물 이용 편리
 - 오사카보다 에도의 도로가 광대

MBC NEWS

大坂遷都を 主張

幕末維新ニュース 1月23日
大久保 大坂遷都を主張
NEWS NOW

大久保利通

国立歴史民俗博物館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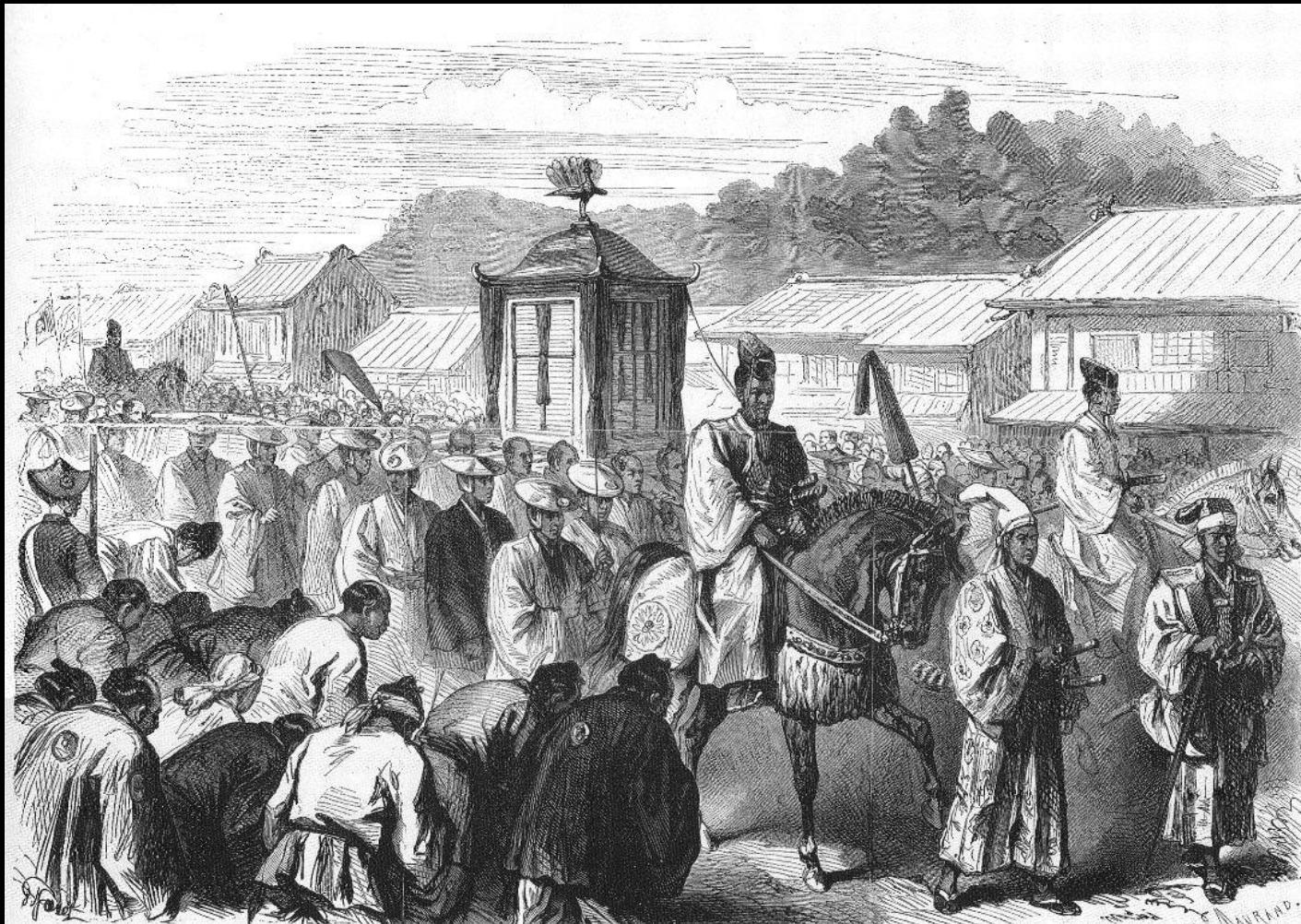


도쿄 東京의 탄생

- 메이지 천황, 에도 장악 직후 행행 行幸, 일단 귀경
- 1869년 다시 에도에
- 에도를 도쿄 東京, 에도성을 황성 皇城으로 명명
- 교토 시민들의 속내. 일본의 미야코(都)는 어디인가?



에도 행행 行幸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로

- 폐번치현(1871)의 결단:
“지금 이대로 와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대영
단을 내리고 와해되는 편이 낫다”
 - 김구, "가지 잡고 나무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천길 낭떠러지에서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대장부다."
- 〈백범일지〉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서양에



1년 10개월 동안, 구미 12개국



총 107명의 대사절단



일본정부 절반이
서양을 방문하다



서양 견문

-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 방적공장, 의회, 신문사, 재판소, 극장 견학
- 워싱턴에서 그랜트 대통령 회견
- 영국: 리버풀 조선소, 맨체스터 목면공장
- "도로, 교량을 잘 만들고 편리함을 위주로 마차는 물론 기차가 안 닿는 곳이 없다"
〈사이고에게 편지〉
- 빅토리아 여왕 회견
- 영국의 발전상에 강한 충격

서양 견문

- 파리 방문, "건물의 장대함, 시가지의 청결함, 날씨의 상쾌함이 다른 데 비할 바 없다"
- 티에르 대통령 회견
- "영미불은 몇 수 위라 당장 따라가기 어려우니 독일, 러시아를 견학해봐야"

오쿠보와 비스마르크

이와쿠라 사절단 일원인 오쿠보 토시미치는 영국과 프랑스에 반세기 이상 뒤처진 유럽의 변방국 독일이 국가주도 공업화, 국민교육을 통한 압축성장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를 압도한 비스마르크에 깊은 감명을 받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겉으로는 예의를 지켜 상호거래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사실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탈하려는 속셈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 힘을 길러라.

독일을 통일하고 경제를 부흥시킨 비스마르크 수상
- 위대한 독일인 10인 중 한 명

우리는 서양의 발달 된 모습에 일단 놀란다. 그리고 심취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다짐한다. 미친듯이 배워서 우리도 꼭 그런 수준에 도달하겠다



비스마르크를 찾아 가르침을 구한 오쿠보 토시미치

흥선대원군



척화비



1883년 보빙사, 미국으로





사이고, 征韓論 주장

- 잔류(留守)정부, 내정혼란, 조선과 외교갈등
으로 정한론 결정
- 잔류정부책임자 사이고 다카모리, "(조선에)
공개적으로 사신을 보내면 반드시 폭살시킬
것이니 부디 저를 파견해주실 것을 엎드려 바
라옵나이다" <이타가키 다이스케에 편지>
- 사이고의 본심: "내란을 바라는 마음들을 해
외로 옮겨 나라를 일으키는 원략遠略"으로
삼아야

오쿠보 급거 귀국, 사이고와 정면충돌

- 오쿠보 도시미치, 급거 귀국
- 정한론으로 사이고와 정면충돌
- 오쿠보의 반대이유(현실주의자의 면모)
 - 전쟁할 재원이 없다
 - 영국과 러시아의 반응 우려
 - 설령 조선을 점령해도 유지할 힘이 없다
 - 전쟁을 한다면 준비, 승산계산 등을 숙고한 후에 해야

정한론 분쟁(1873)



征韓論めぐり
対立



오쿠보, 미국의 두 아들에게 유서:
이 과업을 사력을 다해 완수해 천황의 은혜
에 보답.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타국에
서 들을지도 모르겠다.

정한론 분쟁(1873)

- 1873년 10월 14일 각의에서 격돌: 결론 안남
- 10월 15일 각의에서 태정관 산조 사네토미가 사이고에 동의: 사절파견 결정
- 이와쿠라, 오쿠보, 이에 반발 사의표명
- 10월 18일 산조, '발병', '정신착란'
- 각의결정의 천황상주가 늦어지는 사이, 이와쿠라-오쿠보의 궁중 공작 :'하나의 비책'
- 천황측근을 움직여 사절파견 연기를 상주: 천황의 결정
- 이번에는 사이고와 그 일파가 총사직, 낙향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정한론파의 저항

- 패배한 정한론파를 따르는 사무라이반란
이 잇따름(사가佐賀의 난, 서남전쟁)
 - 사가의 난(1874) 진압: "에토의 추태에는 웃음이 나올 뿐"

江藤
新平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의 개혁

- 오쿠보 독재체제 확립
- 각종 근대적, 서구적 개혁을 주도:
기도 다카요시 木戸 孝允(급진적)에 비해 점진적 개혁
- '富國'을 슬로건으로 식산통업정책
- 철도, 전신,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식산흥업에 관한 건의〉

〈〈大久保利通文書〉〉 5권

- (한 나라의)산물의 많고 적음은 인민이 공업에 열심히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정부관리가 지도하고 장려하는 힘에 달려있다. . . . (영국은 소국이지만) 섬나라라 향만에 이점이 있고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부 관리들이 자연의 이점을 이용해 번성하게 하고, 군신이 모두 마음을 써서 세계항해의 이점을 얻고 국내 공업을 크게 진작시키려 하여 전에 없던 항해법을 과감히 제정하였다. 이후 공업이 점점 매우 성하게 되어 국내산물을 국내인민에게 공급하고도 남게 되었다. 그러자 비로소 그 금령을 해제하고 무역의 자유를 허가하였다. 이것이 영국이 금일의 부강을 이룩한 이유이다.

오쿠보의 식산흥업정책

- 국영 모범 공장 설립
- 해운업 증진: 미쓰비시 지원(이와사키 야타로)
- 국영, 민영 무역상사 설립

국영 모범공장: 도미오카富岡 제사장製絲場



권업박람회 勸業博覽會



도호쿠 東北 지역 개발 시도



노비루野蒜 항구 건설



오쿠보의 급진적 계승자들: 이토 히로부미와 오쿠마 시게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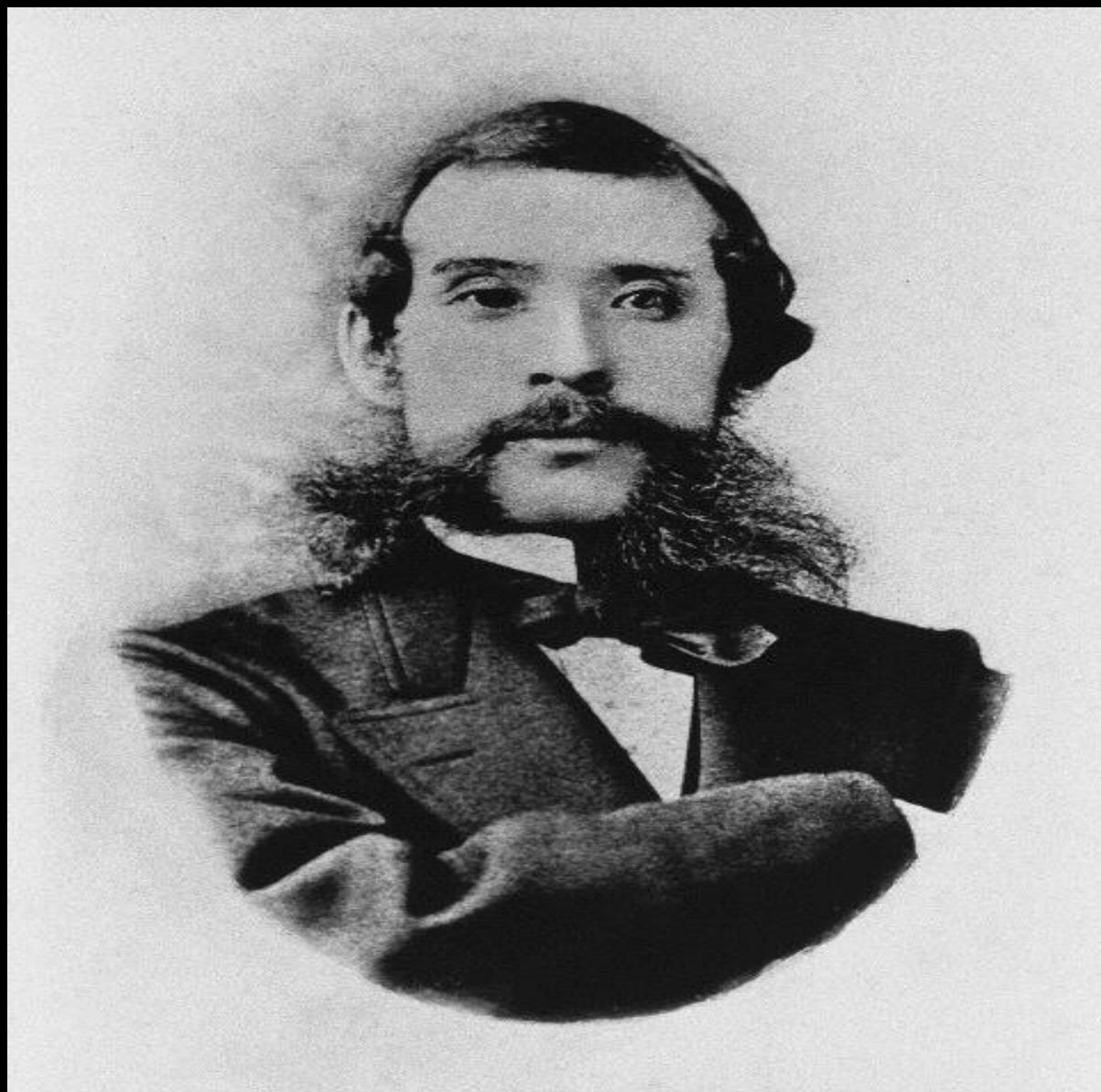


오큐보 도시미치의 외교

- 1874년 타이완침공:
북경에서 이홍장과 담판, 50만 냥 배상금,
류큐 확보#
- 75년 러시아와 사할린-쿠릴 교환협정
- 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갈 길이 바쁜데… 사이고 마침내 봉기하다, 서남전쟁 (1877)

- 참의 參議, 대장경 大藏卿, 내무경 內務卿을 역임하며 '오쿠보 大久保정권'을 구축.
- '독재'라고 비판 받음=>반발과 원성의 표적이 됨
- 가고시마는 반독립적 상태: 私學校에 사쓰마 사무라이 집결
- 가고시마의 왕, 사이고, 온천/수렵생활
- 전국 사무라이의 여망을 한 몸에: 사이고의 고민
- 가고시마현의 무기고를 사학교생도가 습격, 3만 명으로 전쟁 시작

오큐보 도시미치의 포부

- "메이지 원년부터 10년간 일본은 제로에서 출발했다. 모든 게 처음부터였고 전쟁도 많아 창업의 시대라고 할 만 했다.
- 앞으로 10년은 내치를 다듬고 민산(民產)을 흥하게 하는 건설의 시대가 될 것이다. 불초 소생이 전력을 다해야 할 일이다.
- 그 후 10년은 우수한 후배가 뒤를 이어 메이지의 일본을 크게 발전시켜 줄 것이다"

오쿠보, 암살(1878)

- 서남전쟁 진압과 '오쿠보 독재'를 비판하는 사무라이들에게 출근 길에 암살당함



1878년 참의 및 내무경, 암살직전



후계자, 이토 히로부미

B-1-02 明治の重鎮 伊藤博文と大久保利通



인간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

- 바둑 취미, heavy smoker
- 청렴
- 洋風 선호: 파이프, 유리로 된 세면기구, 양식가 옥에 집에서도 양복, 두발은 포마드로 세팅
- 위엄: 대화상대를 압도, 내무성의 발자국소리, 이토 히로부미와 비교
- 좌우명: 위정청명爲政清明, 견인불발堅忍不拔
- 후손: 牧野伸顯(차남), 大久保利謙(손자), 麻生太郎(현손)

현손, 아소 타로



大久保利通의 리더십

- 사즉생死卽生의 결단,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실천
 -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정권반환(대정봉환 大政奉還)에 무력쿠데타
 - 소어소(小御所) 회의에서 동요하는 이와쿠라를 압박
 - 서남전쟁을 가혹하게 진압
 - 타이완 침공 시 북경에서 이홍장과의 담판

大久保利通의 리더십

- 현실주의/점진주의
 - 무모한 양이운동 擅夷運動에 동조안함
 - 번藩권력을 이용한 반막부 反幕府 운동
 - 천황권력의 상대화:
: "천하 만민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야 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불의한 칙명은 칙명이 아니오"
 - 천황을 '다마(玉)'로 호칭

大久保利通의 리더십

- 정한론을 시기상조라며 좌절시킴
- 행정부중심의 국가운영
-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 영국보다는 프로이센을 모델로

大久保利通의 리더십

- 개방주의
 - 이와쿠라 사절단파견과 동행
 - 외국인 고용(お雇い外國人), 유학생파견
 - 급진적 서구화
 - '서양을 배워 서양보다 강한 일본을!'이라는 근대일본 기본노선의 초석을 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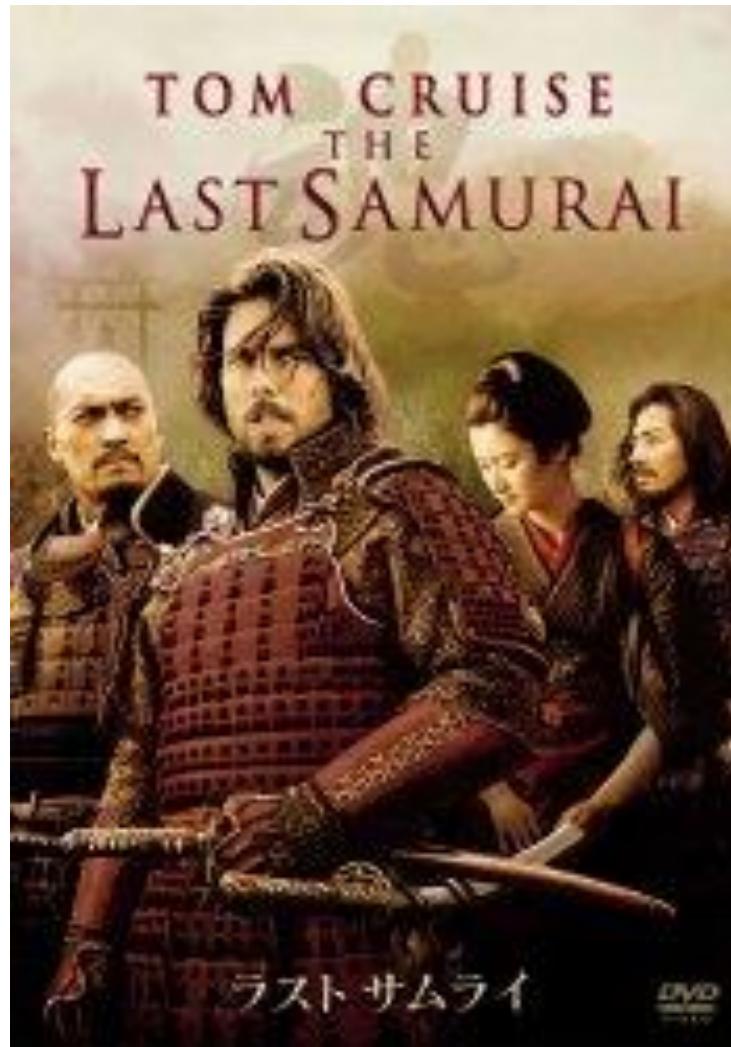
메이지 유신의 리더십
-최후의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 隆盛)

서울대 박훈

근대 일본의 로망



The Last Samur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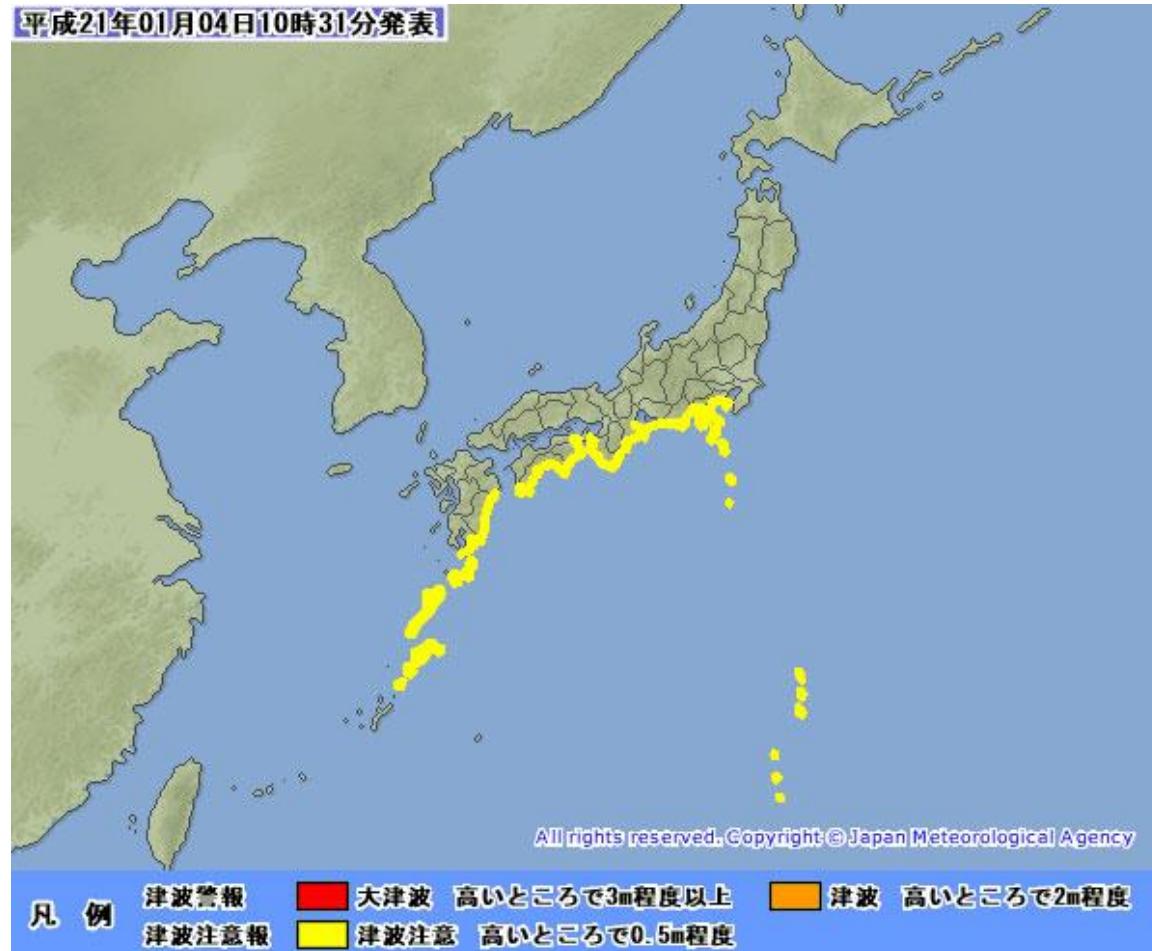
사이고 다카모리의 우상화

- 메이지유신은 급격한 서구화변혁: 일본적 아이덴티티와 프라이드의 손상에 대한 보상심리
- 변혁주도층인 사무라이층의 '신분적 자살'(계급사관 부적합): 사무라이는 가록상실, 폐도령(廢刀令), 징병령 등으로 혁명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함
- 이런 불만과 부족함의 배출구로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우상화됨(오쿠보 도시미치와 비교)

출생과 가문

- 1828년 사쓰마번(薩摩藩)의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출생
- 하급무사집안 출신
- 사쓰마는 270개정도의 번들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번: 강렬한 프라이드, 토자마번의 대표
- 전체인구의 20%정도가 사무라이(향사鄉士)가 광범위하게 존재, 전국평균은 7-10%)

동아시아해양 속의 사쓰마



사쓰마 소주



오키나와 아와모리



사쓰마번의 가문(家紋)



젊은 시절

- 주자학([近思錄]독서회)과 양명학을 배움
- 주군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심복: 서양문
물수용, 부국강병, 무역통상
- 서양기술공장 집성관集成館, 반사로 건설#

시마즈 나리아키라 島津齊彬



집성관集成館



반사로反射爐





정계진출과 유배

- 쇼군계승 분쟁(1858)에서 활약, 중앙정계의 주요인물로, 주군 나리아키라齊彬의 죽음과 막부의 탄압, 순사殉死시도.
- 1859년부터 아마미 제도에서 귀양#
- 1861년 주군의 동생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의 호출로 교토에.
- 62년 6월 재차 유배.
- 8.18정변 후 64년 초 사면.

아마미 제도



시마즈 히사미쓰



막부타도 공작

- 1865년 조슈 정벌군 참모, 타협책으로 정벌전 회피. 적진에 뛰어들어 교섭.
- 1866년 제2차 조슈 정벌에서는 막부에 협력 않고, 거꾸로 반막부 삿초薩長동맹
- 68년초 왕정복고 쿠데타 때 궁궐 포위
- 막부정벌군 총사령관 참모#
- 막부 총사령관 가쓰 가이슈와 협상#
- 에도 무혈개성

戊辰戦争

BOSHIN WAR (1868–1869)





정한론 征韓論 분쟁과 西鄉 隆盛

- 잔류(留守)정부의 근대화시책: 육군성/해군성 설치, 학제제정, 국립은행조례공포, 태양력채용, 징병령, 기독교금제완화
- 천황의 서부일본 순행을 수행, 고향방문
- 메이지정부 수립후 조선과 외교갈등
- 이와쿠라 사절단 외유 중 잔류정부책임자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론 주장

정부에서 사퇴

- 정한론이 좌절되자 참의직參議職 사임
- 다수의 참의와 정치가/군인/관료 6백여명이 동시사직.
- 이들이 귀향하여 사무라이반란을 주도
- 사가의 난, 하기의 난 등
- 사이고, 가고시마로 가 사학교私學校 설치
- 가고시마는 반독립적 상태
- 사이고, 온천, 수렵생활하며 관망

서남전쟁西南戰爭 발발

- 가고시마현의 무기고를 사학교생도가 습격, 3만명으로 전쟁 시작
- 죽마고우 오쿠보 도시미치와의 결전

大久保利通과의 대결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従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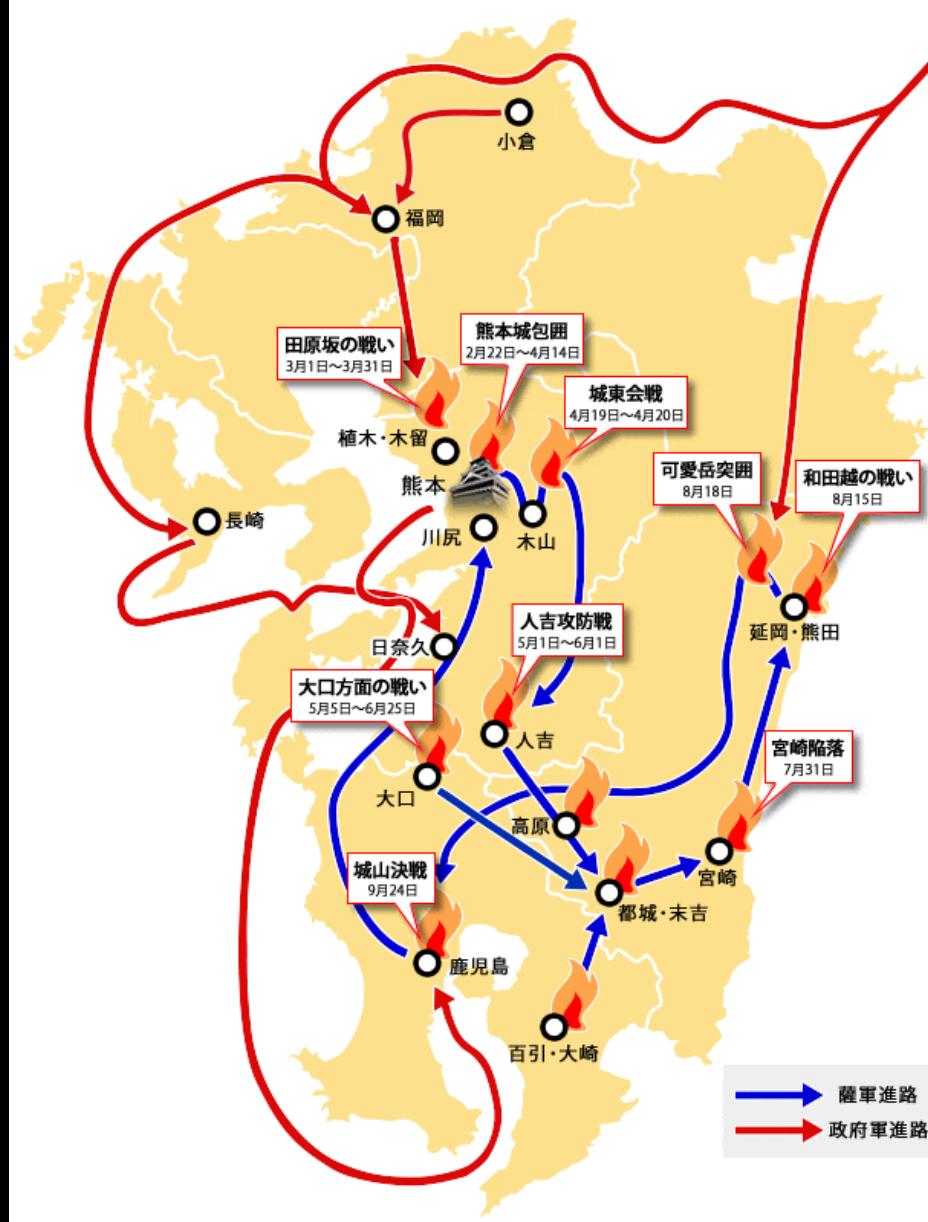


<明治維新의 군사지도자 사이고 다카모리.>

서남전쟁 발발

- 구마모토성으로 진격
- 농민병을 신식장비로 무장시킨 관군에 고전
- 징병평민군대 Vs.
사무라이군대:
징병제 효용입증
- 다른 지역 사족들이 동조 안 함, 농민의 관망
(한달 전에 지조인하)





→ 薩軍進路
→ 政府軍進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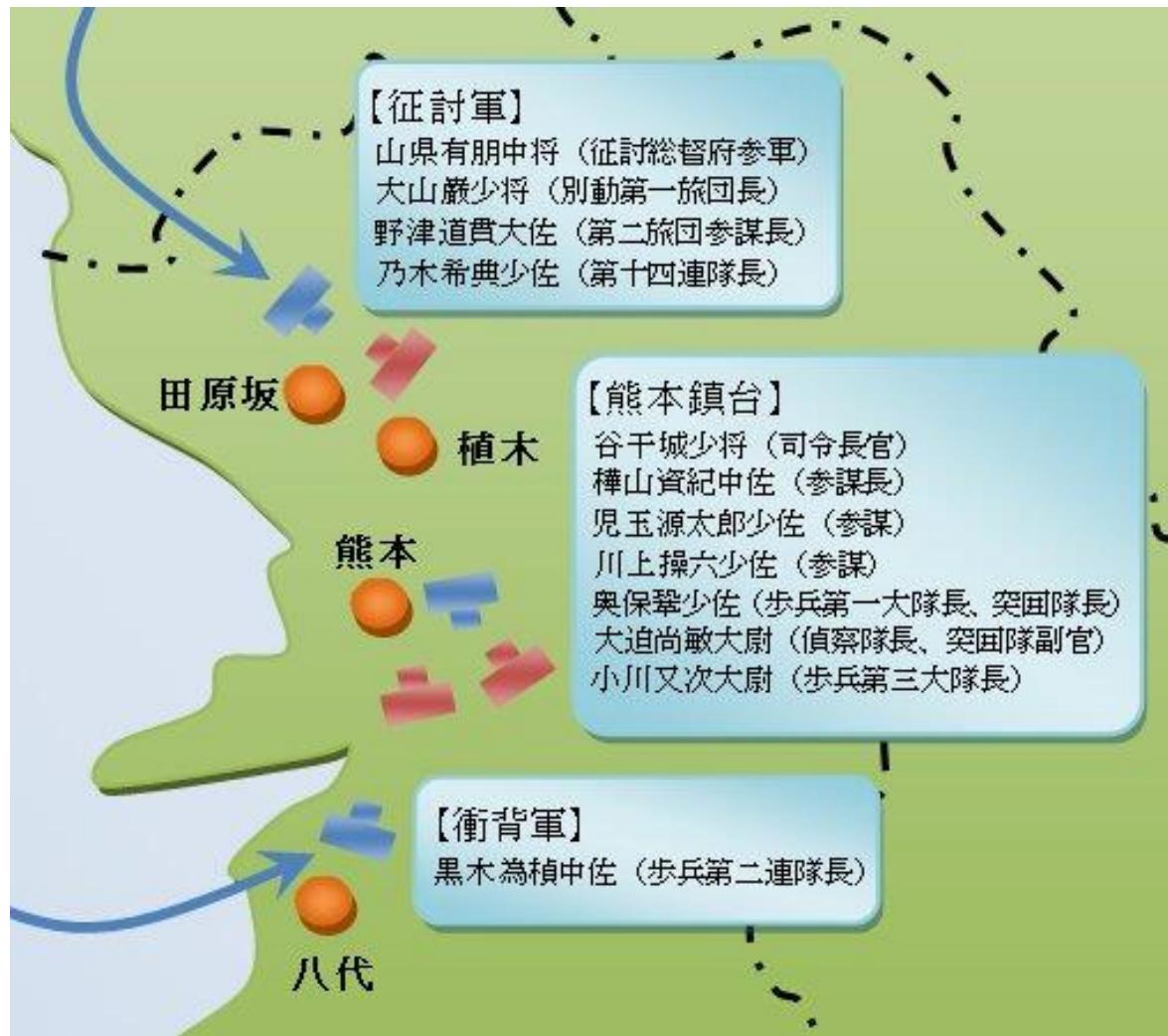
구마모토성 熊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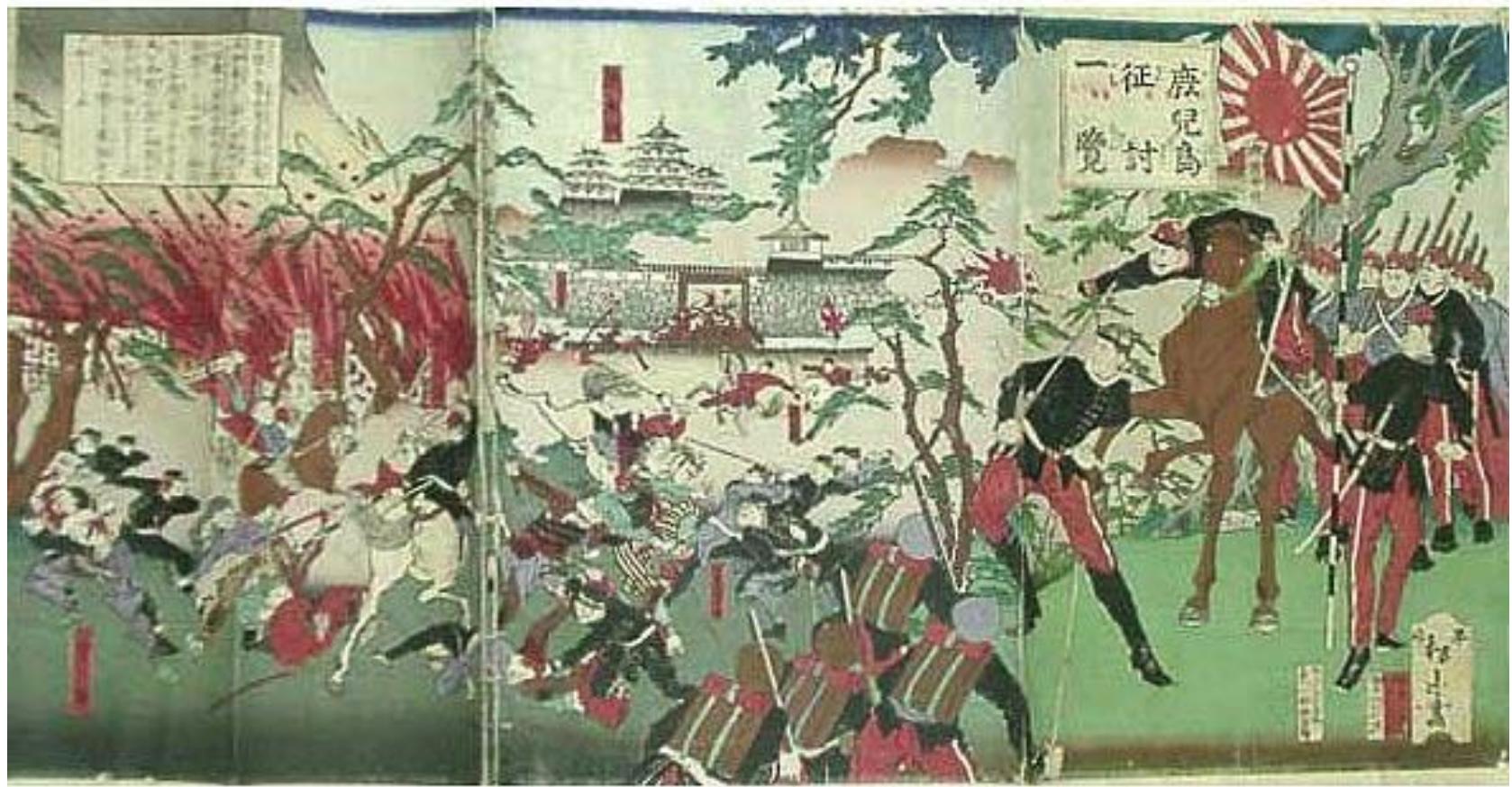
1871년 구마모토성



정부군 진용







能瀬

阵毛良
明治二年
八月九日

兒三八之進

十石前

相良

難之忍

子萬地

森岡長右衛門

十石前

河野

四七年前

中根

洋平

中嶋

武成

兼本善

松岡常五郎

十石前

山田

平左衛門

中根洋平

十石前

町田

梅之進

十石前

生花池

十石前

久

井

作太郎

十石前

庄屋妻登物

十石前

篠原國津

十石前

捕縫人

十石前

幸治郎

十石前

柳山久兵衛

十石前

村十兵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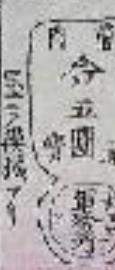
十石前

年昇元

十石前

久兵衛

十石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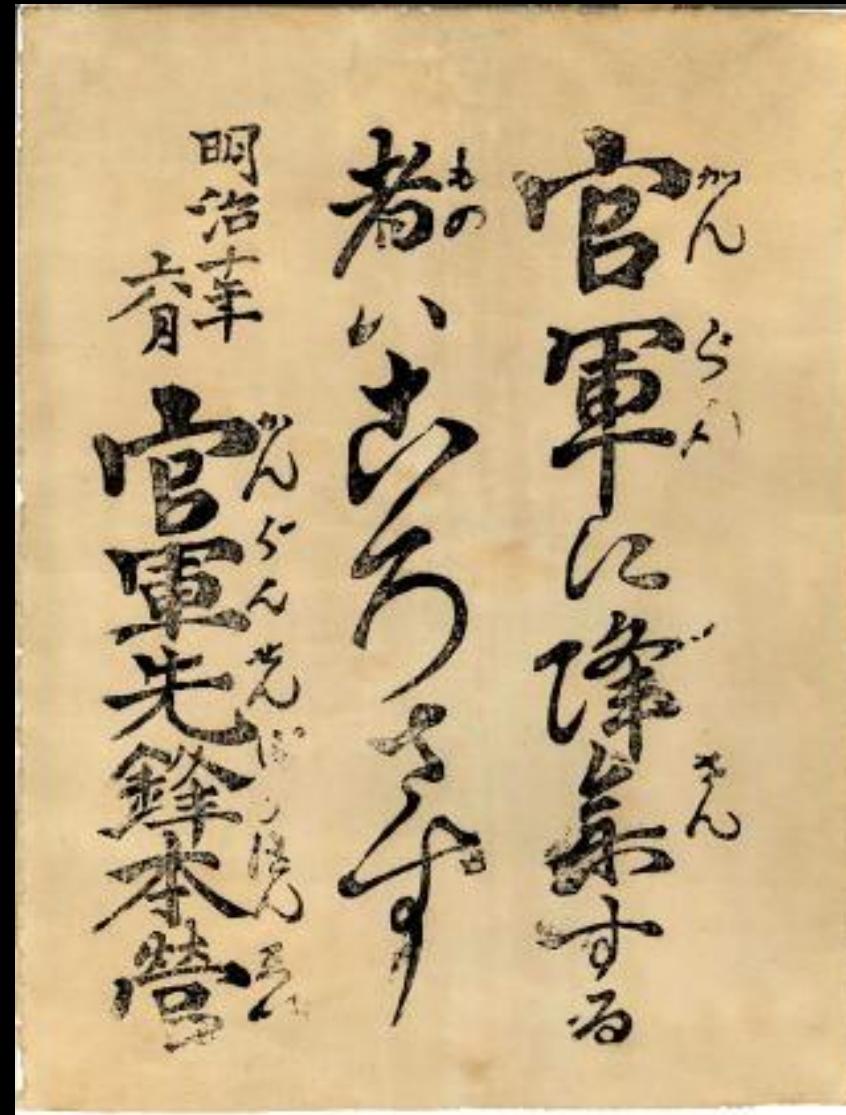
廢嶺暴徒出陣圖



르몽드의 기사



관군의 항복권유 전단





최후의 저항: 사이고 동굴



반란의 실패

- 구마모토성에서 패퇴하여 가고시마로
퇴각, 전사

사이고: 『晋殿 晋殿。
もうここにて好かろう』：
"신스케, 신스케! 이제
이쯤해두자"
벳푸: 『そうちごあんそかい、
御免なんし』
"용서해 주십시오"



別所晉介、
西郷切腹人



別府
晋介
白介



기리노 도시아키 桐野利秋



무라타 신파치 村田新八



사이고, 신화로

- 사이고에 관련된 루머
 - 중국대륙으로 도망갔다**
 - 1891년 러시아황태자 가고시마 방문 시
사이고 귀국설**
 - 타이완에 사이고 후손 생존설**



西鄉吉之助直孫吳龜力

사이고의 열반



사이고, 신화로

- 가고시마 현민의 영웅시, 신격화, 반대로
오쿠보 도시미치의 인기는 낮음.
- 가고시마에서 '사이고와 흑돼지 옥을 하면
나마무기사건의 영국인처럼 된다'
- -메이지헌법 반포 때 사면, 관위수여, 메
이지천황의 애정

근대일본의 로망



우에노공원 동상





西郷隆盛之像
人琴日本軍復讐將
兵士御身追隨正三位
元老忠義參奏不居
敢收苦勞安撫因憲
詔諭像取來立於墓之
前以昭彰其忠義精神
實為我朝之大節不可
忘人臣所作十六年忠
出黑三十一年而薨為足
以從天

경천애인 敬天愛人



사이고 다카모리 西郷 隆盛에 대한 평가

- 강력한 카리스마, 흡인력, 리더십
- 반서양주의자는 아님: 주군 시마즈 나리아
키라의 영향, 잔류정부의 정책
- 그러나 급격한 서양화에는 불만
- 서남西南전쟁의 수수께끼
 - 불평사무라이와의 자폭설
 - 사이고 봉기반대설